장애 아동의 미래를 위한 우리의 과제

기고

김철호
광주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1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하다 보면 가끔 발달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례가 있다.

2년 전 당시 초등학교에 입학했던 아이의 엄마가 담임교사로부터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하지 못한다는 말과 함께 심리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유 받았다. 홀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이를 양육하던 엄마는 담임교사의 말대로 인근 정신과의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았고, 검사 결과 자폐증이라는 소견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다. 늘 엄마에게 환한 미소로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자폐증을 앓는 발달장애 아동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아이의 엄마는 속상한 마음을 술로 달래보고자 아이를 재운 후 저녁 늦은 시간 외출을 했다가 잠에서 깬 아동이 길거리를 배회하다가 낯선 사람에 의해 112 신고됐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의 엄마는 우리 기관의 사례관리를 통해 양육 효능감이 향상됐고, 아동이 가정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연계해 실질적인 도움을 줬다.

발달장애아동과 관련해 심한 경우에는 아동을 살해하는 사건까지 발생된다. 지난해 전북 김제시에서 지적장애를 앓는 초등학생 아들이 숨진 사건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다. 이혼 후 홀로 아들을 키우던 어머니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또한 2023년 11월에도 서울 은평구에서는 홀로 1급 중증장애인인 8살 아들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아들을 살해하고, 본인도 자살을 시도했지만 살아남은 사건도 있다. 이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겪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원의 부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재활원의 최신 통계인 '장애인건강보건통계'에서도 장애아동의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기준으로 0~9세 장애아동의 타살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6.1명으로, 전체 아동의 0.8명에 비해 약 7배 이상 높다. 이는 장애아동이 비장애아동에 비해 훨씬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부모나 보호자에 의해 생명을 잃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가와 사회가 장애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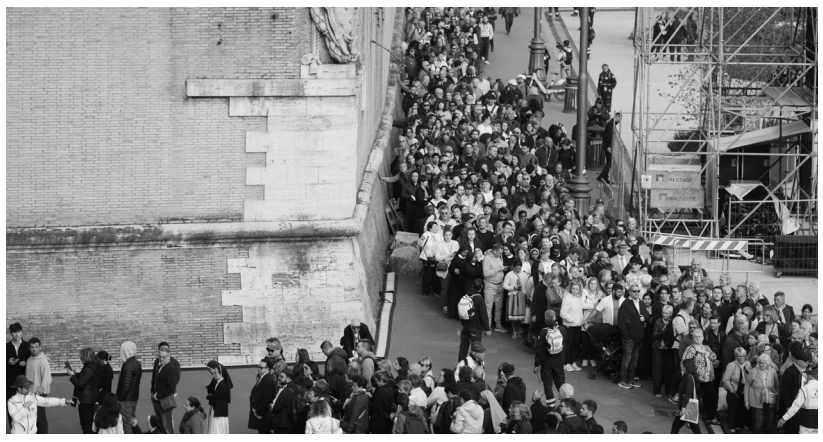
첫째,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 장애아동의 치료비와 재활비는 가정의 경제 상황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비 지원 확대와 더불어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 및 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심리적 지원 역시 중요하다.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낄 수 있으며, 이는 정신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와 정서적 지지가 제공돼야 하며, 보호자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지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아동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들도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일원이다. 자녀 살해는 명백한 범죄이지만,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는 이면에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는 장애 가족이 겪는 고통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혹시나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우리 이웃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고, 우리는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를 통해 장애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그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4일(현지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신이 안치된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조문하려는 사람들이 대성당 앞에서부터 길게 줄을 서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파파 프란치스코'

서기 1200년 경 어느 날, 유능한 기사(騎士)가 돼 세상에 이름을 날려 보겠다던 18세 소년 프란치스코가 '새로운 꿈'을 찾아 여행을 떠났다. 자신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을 버리고 떠난 가난한 여정. 하지만 그는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흐트리지 않았고 되레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해 확신을 가졌다. 그리고 돌아온 고향 아시시.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인 그곳에서 그는 '네가 보고 있는 폐허가 된 나의 집을 수리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한다. 프란치스코 성인과 100여 개의 크고 작은 성당으로 도시 전체가 종교 건축물인 아시시의 출발이었다.

성 프란치스코에게 삶은 무소유를 위한 기나 긴 여정이었다. 예수가 열두 제자에게 하느님의 나라를 당부하는 데 감명을 받은 그는 청빈한 삶이 곧 예수를 실천하는 길이라 믿었다. 허름한 옷과 거친 음식으로 평생을 지냈고 사랑과 평화의 정신을 전파하는 것도 그에게 주어진 숙명이었다. 1208년 한센병 환자가 모여 사는 곳에서 검소하게 살아가며 설립한 '작은 형제회'나 여성의 가치를 일깨우기 위해 만든 '가난한 자매회' 등도 성 프린치스코가 절대적 무소유와 평화, 인류공영이라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는 분명한 길이었다.

"가난한 사람을 잊지 말라는 인사를 받는 순간 아시시의 성인 프란치스코가 떠올랐다." 지난 2013년 3월, 266대 교황에 선출된 호르헤 마리오 베르고글리오 추기경이 자신의 새 이름을 프란치스코로 명명하고 교황으로 첫 미사를 진행했다. 성인(聖人)이었지만 1000년 가까이 잊혀졌던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딴 것이었다. 항상 검소함과 겸손함으로 살아왔던 프란치스코 교황. 그에게 사회적 소수자와 가난한 사람들은 친근한 이웃이면서 동반자였다. 즉위 미사에서도 그는 성 프란치스코를 언급하며 '가장 가난하고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들을 사랑으로 끌어안아야 한다'고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1일 선종하면서 그가 평생 추구했던 정의와 평화,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다시금 세계인의 양심을 울리고 있다 . 그는 신앙과 사랑의 길을 몸소 실천하며 모두에게 깊은 영적 가르침을 안긴 지구촌의 큰 어른이었다. 지난 2014년에는 우리나라를 찾아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만난 뒤 "인간의 고통 앞에 중립은 없습니다."고 위로했다. 뻔뻔함과 몰상식이 난무한 지금 우리 사회에 주는 큰 울림이다. 낡은 구두와 소박한 차, 철제 목걸이는 지금도 눈에 선하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고, 환경 보존과 종교 간 화해에 큰 발자취를 남긴 교황. 북한과의 대화와 화해를 염원하고, 생의 마지막까지도 전쟁의 재앙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류에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남긴 '파파 프란치스코' . 그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한다.

이용환 논설실장

社 說

'메가시티'로 새로운 호남시대 열어갈 때

이재명 호남 공약 발표

"가만히 생각건대, 호남은 국가의 보루이다(竊想湖南國家之保障·절상호남국가지보장)."

이순신 장군의 어록을 인용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이 후보는 24일 호남방문을 앞두고 호남권 공약을 발표하며 "호남에 막힌 국가의 경제 동맥을 뚫겠다"며 메가시티 구상을 내놨다. 이는 단순한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국가경제 재도약의 한 축으로 호남을 삼겠다는 선언이다. 핵심은 메가시티 구상과 이를 뒷받침할 산업·교통·의료 인프라의 입체적 투자다. 광주에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확충, 전라북도 전주에는 제3금융 중심지 기반 마련, 전라남도 여수에는 석유화학 산업의 친환경 전환이 예고됐다. 나주는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신안·부안·고흥 등은 해상풍력 거점으로 육성된다. 농생명과 식품산업도 전북·전남 중심으로 미래산업으로 전환된다. 무엇보다도 호남 지역의 대학 및 병원 인프라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전남과 전북에 국립의대를 각각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직접 양성하겠다는 공약은 지방의 필수 의료 공백을 메울 실질적 해법이다.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도 지역 상생을 전제로 '같이 살 수 있는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면 막힌 동맥부터 뚫어야 한다"며 "호남을 제대로 키워야 대한민국이 숨을 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에게 호남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 '국가 혁신의 출발점'이다. 메가시티 호남 구상은 교통망 확대를 동반한다. 호남고속철도 2단계 조기 완공, 전라선 고속철도, 달빛내륙철도와 전주~대구 고속도로 등 대동맥들이 제시됐다. 단절된 경계를 연결하고, 서남해안과 내륙을 잇는 관광벨트 구상까지 가미되며 호남의 공간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으로 재설계된다. 시민과 지역 정치권이 할 일은 분명하다. 정치적 호불호를 넘어, 지역의 생존과 도약을 위한 담대한 프로젝트에 힘을 모으는 일이다. 메가시티 구상이 단지 선거용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지금부터 호남은 더 큰 목소리로 말하고 선택해야 한다.

도심 싱크홀 키우는 노후 하수도 개선돼야

광주 싱크홀 64% 하수도 원인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가 시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단순한 일시적 현상이 아닌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싱크홀의 주범으로 노후 하수관로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싱크홀 발생 64%가 하수도가 원인으로 꼽힐 정도다. 광주에서 지난 5년간 발생한 싱크홀 107건 중 69건(64.4%)이 하수도 손상 또는 파손으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하공간의 안전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시 현안임을 보여준다.

광주 지역의 하수도 총연장은 4570㎞에 달하며, 이 중 65%인 3006㎞가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노후 관로다. 상수도관도 절반 이상이 노후 상태다. 이런 인프라 노후화는 싱크홀 발생의 주요 원인이자, 향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다. 실제로 광주는 2020년 집중호우로 1년간 싱크홀 55건이 발생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하수관 파손에서 기인했다. 문제는 뚜렷한 종합 대책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노후 관로의 체계적인 조사와 정비, 재정 확보 방안 등이 시급하지만, 관련 계획은 분절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도 미흡하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지하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하 안전에 대한 관리체계 부재는 더욱 우려를 낳는다.

상하수도 관로는 지하 공간에 파묻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도시의 근간을 이루는 기반시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지상 기반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뤄져 왔다. 광주시는 지하안전 총괄기능을 강화하고, 하수관로를 포함한 주요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밀 조사와 단계별 보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하안전관리 콘트롤타워 구축'이라는 박필순 광주시의원의 제안은 설득력이 높다. 싱크홀 사고는 갑작스럽게 발생하지만, 그 원인은 오랜 기간 방치돼온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소외됐던 지하안전 관리에 좀더 적극적인 행정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다. 보이지 않은 땅 속의 경과를 간과한다면 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다.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www.jnilbo.com
m.jnilbo.com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 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